

지역사랑 파트너

사장님의 가게, **무료로 광고**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달서구 ·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053)572-6000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E-mail: pr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번지 4층(우편번호 42640)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